

# 東歐 社會主義의 변혁과 우리 大學文化

李 光 周

(全州大 歷史教育科)

## 1. 머리말

지난 해 가을부터 동유럽에 엄청난 變革이 일어나고 있다. 사회주의 체제에 반대하여 거의 동유럽 전역에 걸쳐 폭발된 민주화 봉기는 제2차 대전 이후의 東·西間 冷戰 체제를 뒤집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바야흐로 맑스주의적 사회주의의 종언이라는 20 세기의 世界史的 革命的 도래를 예고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지금 새로이 구축되고 있는 국제 질서는 우리의 統一 문제에 대해 큰 영향을 끼칠 것이 분명하거나와 社會主義의 行方은 1917년의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이 그러하였듯이 이 땅의 知識社會에 대해 적지않이 영향을 줄 것이 틀림없다.

사회주의 체제는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사회주의와 맑스주의의 미래는? 本稿에서는 오늘날의 知性이 맞서고 있는 이 최대의 물음과 관련하여 우리 大學社會 내지 大學文化의 과제와 바람직한 位相에 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2. 맑스主義와 大學文化의 位相

1968년 5월의 파리 학생 봉기를 절정으로 '70년대를 전후하여 서유럽·미국·일본 등 선진 산업 사회에서는 대학 역사상 일찌기 유례가 없었던 급진적인 이데올로기 지향의 학생 운동이

전개되었다. 그것은 선진 고도 기술 산업 사회가 공통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구조적 모순에서 파생된 것으로서 가히 '學生革命'으로 지칭될 만큼 文明史的인 意味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학생 운동이 한창일 때 서독의 어느 정치가는 그 상황을 국가의 '內亂'으로 비유하였거니와 左派 이데올로기의 이론적 무장을 갖춘 소수 학생 지도 집단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이미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 부정적인 '異議'를 제기하였다. 그 무렵 서독에서는 부친과 동일한 정치적 입장을 지닌 청년의 수가 겨우 4%에 지나지 않았으며, 86%는 전혀 반대의 입장을 취했다고 한다. 세대간의 갈등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도 있기 마련이라고 하나, 사회의 일체감과 정통성을 파괴하는 '젊은이들의 반란'은 청년 문화를 창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스튜던트 파워'까지도 대두케 하였다.

젊은 세대의 도전의 대상은 특히 국가 권력 체계에 집중되었다. 혁명적인 학생 운동의 와중에서 미국의 사회학자 리스만(David Riesman) 교수는 고도 산업 사회의 변혁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대학의 혁신을 논의한 저서 「대학혁명」(The Academic Revolution, 1968)을 세상에 내놓았다. 그 「대학혁명」은 물론 5월의 학생 봉기가 계기가 되어 씌어진 것은 아니었다. 제2

차 세계 대전 이후의 급격한 산업화 현상은 학원의 담모스화(담모스화)와 더불어 지식과 학문의 성격에 큰 변질을 초래하여 이미 대학 혁명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우리 大學社會의 現實은 어떠한가?

'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들은 지난 날의 학생 운동, 즉 민족의 독립을 위한 抗日運動이나 4·19의 反獨裁的인 闘爭과는 유형을 달리하는 政治社會的·이데올로기적인 학생 운동을 체험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선진 산업 사회의 학생 봉기와도 유사한 複合的인 性格을 지닌 오늘날 이 땅의 학생 운동이 바야흐로 고도 기술 산업화 사회에 진입한 우리의 轉換期의 狀況과 깊이 관련됨은 다시 말할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산업 사회의 현실만큼 다양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내포한 오늘날의 학생 운동은 그것을 주도하는 소수 '의식층' 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反體制的인 指向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친 급진적 변혁을 추구하는 세력을 좌파라고 지칭한다면, '80년대 후반 이후 학생 운동을 주도하여 온 소수 '의식층' 학생들을 우리들은 좌파로서 인식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들은 사실 오늘날의 우리 사회의 현실을 革命的 狀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스스로를 變革의 先驅者로서 자부한다. 그간 군사 정권의 公安 당국은 우리 사회를 그들에 의해 '의식화' 되었다는 식으로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여 지칭했지만, 그들 좌파가 대학 캠퍼스에서 시민권을 획득한 지는 이미 오래 된다. 많은 대학에 있어서 그들은 학생회를 장악하고 수 많은 학생들을 대중 동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 신문을 그들이 신봉하는 이데올로기에 맞추어 제작하고자 한다. 그뿐만 아니라 좌파적 성향의 소장 학자들은 바야흐로 學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이른바 '實踐的 學問'을 표방하여 온 이들 소장 학자들이 학계에서 시민권을 얻은 지도 오래 되거니와 그들은 사회지향적인 방법론과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관심 그리고 특히 실천적 인식 태도로써 학생들의 관심과 신뢰를 불러 일으키고 있다. '지난' 88년 11월 5일 그들에 의해 구성되었던 인문·사회과학의 10개 학술 단체

가 연합하여 '학술단체협의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창립 취지문에서 오늘의 역사적 현실을 '非民主的 지배 질서와 反民族的 분단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형성된 민중 운동의 도도한 흐름은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역사의 대세'로서 인식하고, 기성 학계를 "식민지적 구각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의 구체적 현실을 망각한 체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으로 단지 기성 체제의 이익만을 대변해 왔다"고 비판한 뒤 民衆과 民族의 解放을 위한 학문을 제창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이 협의회는 기성 학문의 구태의연한 방법론과 고루한 관심 영역을 넘어 민족적이고 민족적인 학문의 새 기원을 여는 데 앞장 설 것이다." '학술단체협의회'는 같은 해 6월 3~4일 양일 간에 걸쳐 '80년대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현 단계와 전망'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연합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 심포지엄에 대해 신문들은 <'3세대 학자' 총 집결하여 '민중학문' 선언>이라고 대서특필하였다. 그리고 이론적 敎條·黨派性의 극복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부인하였다.

앞의 취지문에서 설명되었듯이 '학술단체협의회'에 집결한 소장파들은 하나같이 실천적 학문을 내세운다. 인식과 실천의 일체성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들의 강한 비판적 자의식은 그러나 결코 놀랄 것이 아니다. 근대 인문·사회과학은 원래 反抗科學(Gegenstand Wissenschaft)으로서—神權의 지배에 대한 인간 이성의 복원, 봉건 체제에 대항하는 시민 계급의 이데올로기로서—성립되고 발전하였으며, 세계를 단지 해석만 하는 철학을 거부하고 세계를 변혁하는 데에서 인식의 참된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맑스에 이르러 학문은 실천적 차원을 더욱 높여 解放科學으로서 이데올로기적 경향을 짙게 하기 위해 이르렀다.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 혁명에서 어언 200년 그리고 러시아 혁명으로부터도 70년이 지난 지금 革命文化는 이미 世界史的 普遍性을 획득한 지 오래되지 않았던가?

解放科學의 담당자라는 제3세대 학자들의 강한 自意識은 스스로 혁명 문화의 세례를 길게 받은 좌파 학생 리더들과 유사하게 대체로 오늘날에 한국이 처한 현실을 혁명적 상황으로 간주

하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그들의 인식의 정당성 여부는 異論이 있겠으나, 學識이 家父長的 위계 질서를 뒷받침한 敎學으로서 가능한 우리의 전통 사회를 돌이켜 보고, 국토 분단과 민족 분열의 상황 속에서 근대 사상의 가장 거대한 즐거인 맑스주의를 禁忌視 하여 온 지난 40여년의 우리 사회의 파행적 행태를 반성할 때, 이들 소장 학자들의 등장과 그들에 공명하는 좌파 학생층의 출현은 우리 대학 사회 및 대학 문화의 전환을 말해 주는 것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 문화의 바람직한 확립을 위해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정치 결사의 제도권 수용이 논의된 바 있었거니와 맑스주의 및 맑스주의자의 대학 수용은 그에 앞서서 긍정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과제로서 생각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상의 자유' 및 '교직의 자유(Lehrfreiheit)'를 생명으로 하는 대학의 본질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어떤 특정 사상을 금기시 하는 秘敎的·知的 풍토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 3. 社會主義의 未來

1989년은 1789년의 프랑스 혁명 2백주년의 해였다. 그 2백주년을 기념하여 7월 14일 파리의 바스티유 오페라 극장에서 혁명 찬가가 울려 퍼지고 있을 때 부다페스트, 프라하, 라이프치히, 동베를린에서는 또 하나의 혁명이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다. 헝가리와 폴란드에서 시작된 사회주의 체제에 항거하는 민중 봉기는 민주화 도미노 현상을 분출시켜 마침내는 동유럽 공산권의 아성인 동독의 호네커 정권을, 연이어 체코, 불가리아, 유고, 루마니아 그리고 아르바니아에 있어서도 공산 정권을 무너뜨렸다. 특히 11월 9일에 있던 동독 당국에 의한 베를린 장벽의 철거 조치는 동유럽에서의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를 상징하는 가히 혁명적 사태의 발생이라고 할 것이다.

'61년 8월 베를린 장벽에 이어 브란덴부르크 개선문을 중심으로 길이 156km에 이르는 콘크리트 경계벽을 동·서독 사이에 쌓아올린 뒤 호네커는 그 '반과쇼 보호벽'이 1천년은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호언 장담하였다. 그 고집스러운 공산주의자는 사회주의 국가의 천년 왕국을 꿈꾸었던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28년 전 베를린 장벽이 구축되었을 때, 당시 서독에 망명중이던 「양철북」의 作家 그라스(Günter Grass)는 그 벽 속에서 「파멸치한 국가 권력의 정체」를 발견한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의 사회학자 벨(Daniel Bell)이 “공산주의 세계에 하나의 괴물이 뱀들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괴물이……”라고 「공산당 선언」의 유명한 첫 머리의 구절을 빗대어 말하기도 하였지만,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지는 소리는 그간에 그 벽이 상징했던 東西 냉전 구조의 와해를 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또 한편에 있어서는 사회주의의 甯鍾으로서도 울려 퍼졌을 것이다.

만약 동유럽에서의 민주화 운동이 사회주의 체제 내지 사회주의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1917년의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과 맞먹는 20세기 최대의 벽력으로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지금도 진행중인 그 민주화 운동의 앞날에 대한 속단은 삼가하여야 할 것이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미루어 사회주의의 항방에 중대한 변화가 일고 있음은 분명하며 그것은 또 우리의 통일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대학 문화의 앞날에 대하여서도 적지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의 대학 사회 내지 대학 문화에 끼칠 등구권의 사태에 관한 논의에 있어 우리들의 최대 관심은 사회주의 體制의 붕괴 현상이 과연 사회주의 자체의 종말에 이어질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사회주의는 그 思想運動 및 體制의 세 가지 단계로 구분되며 그것들은 저마다 독자적인 論理를 지닌다. 사상으로서의 근대 사회주의는 물론 맑스주의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변증법적이며 史的인 유물론의 이론적 토대 위에 이루어진 맑스주의는 자본주의 사회를 노동자 계급의 혁명적인 행동을 통해 뒤집어 놓음으로써 인간 억압과 소외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주의 사회를 건설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맑스주의에 의하면, 모든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이며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 간의 갈등이 날로 심화되어

혁명적인 상황이야말로 현대의 특징으로서 진단된다. 이러한 맑스주의의 신봉자들은 혁명적 상황의 조성과 소비에트 체제의 실현을 위해 사회주의 운동에 투신한다. 사회주의 사상이 사회주의 운동을 낳고 그 운동의 단계를 거쳐 사회주의가 처음으로 체제의 시대에 진입한 것은 1917년 11월 17일의 소비에트 러시아의 탄생에서부터였다.

소련 한 나라에만 국한되었던 사회주의 체제는 제2차 대전 이후 동유럽·아시아·라틴아메리카로 확대되어 그 붉은 영역은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그간 1960년대에 독립을 성취한 제3세계의 여러 나라에 있어서는 사회주의 신화가 만들어지는 등 맑스-레닌-스탈린주의의 승리가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사회주의의 신화는 노동자 계급에 대해서보다도 사실은 지식인들을 더욱 사로잡았다. 사르트르는 휴머니즘이란 무산 계급의 해방을 의미하며, 민주주의는 사회주의에 의해서만 실현된다고 말하였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 20세기 최고의 지식인은 맑스주의를 현대의 유일한 철학으로 인식하였다. 공산당에 대한 그의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한 논문 「공산주의자와 평화」(1953)에서 사르트르는 공산당을 노동자 계급을 해방하는 의지와 힘을 갖춘 유일한 정당이라고 찬양하며 공산당에 의해서만 평화는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사회주의는 비사회주의 국가에 있어서도 그 위세를 떨쳤다. 즉 이탈리아, 프랑스를 비롯하여 여러 자본주의 국가에 있어서의 사회주의는 정치·경제·문화의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과시하여 왔다. 그리하여 1987년 11월 17일의 소련 혁명 70주년은 사회주의의 세계적 제패를 선언하는 축제의 해가 되었어야 하였다. 그러나 절정에 달한 권세가 몰락을 잉태하듯 팽창의 극에 달한 사회주의 제국의 쇠퇴는 이미 그 조짐을 드러낸바, 그것은 모스크바 크레믈린에서부터 싹텄다.

1당 독재와 閉塞의 관료주의 및 계획 경제로써 특징지어진 스탈린주의는 맑스주의와는 물론 레닌주의와도 엄격히 구별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리하여 소비에트 혁명사는 스탈

린주의가 지배한 1930년에서부터 1950년대 전반을 스탈린 시대로서 기록하며, 그 시기를 혁명의 발발에서부터 1920년대말까지의 레닌주의 시대 그리고 고르바초프의 등장과 더불어 '86년 여름부터 '87년에 걸쳐 불기 시작한 '테레스트로이카(개혁)'와 '그라스노스트(정보 공개)'라는 거센 바람을 기록한다.

사회주의의 알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자명한 것은 동유럽이 소련의 그늘에서 벗어나고 있으며, 단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스탈린주의적 1956년 이후의 비스탈린화 시대와 구분된다.

스탈린주의는 1920~'30년대 소련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스탈린이라는 異常人格에 의해 마치 히틀러의 나찌즘과도 유사한 상황이 창출한 擬似이데올로기로서 이해된다. 그리고 그것은 혁명이타기보다도 반혁명으로서 낙인 찍히기도 한다. 그러나 스탈린주의는 과연 맑스-레닌주의와는 다른 전혀 이질적인 것일까? 역사에서의 시대 구분이 대체로 그러하듯이 소비에트의 혁명사도 스탈린주의와 단절된 측면과 함께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맑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 자체에 스탈린주의적 독소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고르바초프의 테레스트로이카가 스탈린주의를 청산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데 죽한다면 세계는 고르바초프의 장래를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지금 유럽의 지식인들은 공산주의를 '실패한 맑스주의'라고 한다. 그리하여 소련의 불세비키 혁명을 '잘못된 시기에 잘못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공연한 知的 풍토가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문제시되는 것은 1917년의 러시아 혁명뿐만 아니라 맑스주의와 사회주의 그 자체가 아닐까?

고르바초프와 동유럽 여러 나라는 그들의 개혁 정책에 있어 혁명 이념의 포기과 자본주의적 시장 원리 및 다당제의 도입에 합의를 본 것 같으며, 그러한 합의는 지금은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중국을 비롯한 몇몇 사회주의 국가에도 언젠가는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주의의 본질과 위배되는 이러한 여러 원리의 수용은 우리들로

하여금 사회주의의 종말을 예상하게까지 한다.

그러나 한편 고르바초프는 그의 개혁 사상이 古典 맑스주의의 복귀와 그 계승으로서의 10월 혁명의 이념에 대한 복귀를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개혁 정책이 레닌 시대의 네프(NEP: 신경제 정책)와 유사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1968년 ‘프라하의 봄’의 주인공이었던 두브체크는 최근의 시민 집회에서 ‘사회주의에 재생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여전히 사회주의자로서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를 기대한다.

자본주의가 갖가지 모습으로 변모하고 발전하였듯이 사회주의에 이르는 길도 그만큼 다양하리라. 동유럽의 변혁 이후 서독에서 열린 사회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한 심포지엄에서 동·서유럽 여러 나라에서 참가한 토론자들은 ‘하나의 사회주의’보다도 ‘여러 개의 사회주의’가 존재한다는 데 대체로 합의의를 이루었다고 한다. 오늘날 소련과 동유럽의 인민들은 스웨덴형이나 핀란드형의 사회민주주의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결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주의 국가임을 간과할 수 없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의 조화를 이루었듯이.

#### 4. 이데올로기의 陷穽

동유럽에서의 반사회주의의 봉기는 반이데올로기의 운동이기도 하다. 사회주의 국가는 그 본질에 있어 혁명 이념과 계급 이념을 핵심으로 하는 이데올로기 국가였으며, 그 혁명과 계급의 이데올로기가 극복되어야 할 것으로 지탄받을 때 이데올로기 국가로서의 사회주의 국가 체제는 그 명맥을 다하였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혁명은 사회 전반의 不條理의 所産이다. 그러나 구조적 부조리가 곧 혁명을 낳는 것은 아니다. 혁명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다수의 ‘집합 심성(mentalité collective)’이 그들을 혁명적 群衆으로 教化하고 동원하는 이데올로기화 되어야 한다.

이데올로기는 사회의 실상을 객관적이며 총체적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이데올로기는 과학성과 더불어 또 한편에 있어 도그마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二重性은 그것이 단순한 인식의 체계가 아니라 實踐的 認識임에서 연유된다.

칼 만하임은 지식인을 ‘상대적으로는 계급성이 없는 존재’ 내지 ‘사회적 무소속’으로 규정짓고 있거니와 지식 계층이 다양한 계급 출신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보편성과 객관성을 본질로 하는 知의 왕국의 주민으로서 不偏不黨함을 지향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 만하임의 규정은 일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을 준비한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나 특히 맑스주의가 胎動한 이데올로기의 시대 이후 知와 지식인의 성격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지식의 본질은 그 創造性에 있다. 지식이 최고 가치로 추구하는 창조성이란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전승된 지식의 전달이나 일상적인 사고를 뛰어 넘는 창조적 지식은 지식이 근거한 사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진다. 그리하여 창조를 지향하는 지식인은 기성 체제와 일정한 거리를 취할 뿐만 아니라 때때로 사회학자 니스벳(Robert A. Nisbet)이 표현한 그대로 ‘敵對的’ 관계에도 서게 된다.

창조적 지성에 있어 의 세계란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끊임없는 ‘異議’에 의해 새로이 인식되고 개혁되어야 할 역사적 현실이다. 데리다(J. Derrida)의 상징적 표현을 빌리면, 세계는 우리들이 그것을 읽는 순간 해체되고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나타나는 ‘텍스트’인 것이다. 루소, 맑스, 프로이트, 마르쿠제 등 창조적 지식인을 본받아 근대 과학이 反抗科學으로서 인식되는 연유도 바로 이상과 같은 知의 창조성에 감하여 필연적이며 蓄爲的이라고 할 것이다.

이상에서 시사되는 바 創造的 知性은 實踐的 認識을 본질로 하거니와 인식은 행동에 이어지는 순간 社會的이 된다. 그리고 인식의 사회성은 知의 이데올로기화를 가져 온다. 특히 인간의 운명이 정치적 언어로 결정되기 마련인 革命的 轉換期에 있어 인식은 더욱 더 이데올로기의

도그마적 성격을, 다시 말하여 黨派的 傾向性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리하여 원래 도구적 기능을 거부한 창조적 지성은 실천의 場에서 이데올로기로 기능하면서 정치적 도구로 화한다.

프랑스 혁명이나 러시아 혁명에서 볼 수 있듯이 근대의 혁명은 제1급의 理論家와 지식인에 의해 선도되었다. 人民主權이라는 혁명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전달한 것은 루소를 비롯한 수많은 계몽 사상가들이었으며, 계급 없는 사회의 이상에 만인의 눈을 뜨게 한 것은 맑스와 레닌이라는 최고의 知性이었다. 그러나 혁명을 위한 ‘술책(device)’이나 강령은 인식하는 인간이 아닌 행동하는 인간에 의해, 적어도 이데올로기에 의해 만들어진다.

이데올로기는 그 신앙적 속성으로 하여 도그마적이다. 그리하여 이데올로기 지배의 사회는 동결된 관념의 세계이며, 부르크하르트의 이론바 ‘모든 것을 단순화하는 무서운 인간’이 지배하는 사회가 된다. 1932년 공산주의로 전향한 앙드레 지드는 소련 여행(36년)을 통해 현실의 소련을 체험하면서 그 이데올로기가 낳은 획일주의에 환멸을 느꼈다.

이데올로기의 마술성으로 하여 많은 유럽의 지식인들이 인민 전선과 스페인 內戰에 투신하였다. 그러나 그 대다수는 현실과 괴리된 그 허구성에 눈을 뜨면서 좌절되고 전향하였다. 사르트르도 이미 1949년에 맑스주의의 스킨라주의화를 비판한 바 있다. 소비에트 러시아는 역사상 최초의 이데올로기 국가이었다. 그러나 스탈린주의의 敎權的 이데올로기는 마침내 소련을 위

시한 사회주의 체제의 파탄을 초래하였다.

다니엘 벨이 1960년에 「이데올로기의 종언」에 관해 논한 지 어언 30년,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가 사라지고 보편적인 간성에 관한 관심이 드높다. 바야흐로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일까?

## 5. 맺는 말

영국의 정치학자인 카(E.H. Carr)는 제2차 대전 뒤 러시아 혁명에 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한 바 있었다. “볼셰비키 혁명은 프랑스 혁명에 필적한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을 능가하는 역사상의 대전환의 하나였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그 도전을 피할 수 없었다. 어떠한 정치 이론, 어떠한 경제 이론도 그 철저한 비판을 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모든 정후로부터 판단할 때 그 영향은 아직 절정에 달하지 않았다.” 자본주의 경제의 자유 방임을 비판하고 한때 계획 경제를 통해 “인간 스스로 자기의 경제적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 카는 단년에 자신의 러시아 革命觀을 일부 수정하였거니와, 그러나 사회주의와 이데올로기의 종말이 널리 논의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들은 결코 사회주의나 맑스주의 이데올로기의 ‘도전’의 世界史的·現代的 意義를 부정할 수는 없다. 더우기 大學文化의 풍요롭고 자유로운 位相의 정립을 위해서는 어떠한 특정 학설이나 이데올로기에 문을 봉쇄하는 어리석음을 더 이상 범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